



신흥국 보험시장의 보험회사 규모별 분석 결과

최 원 선임연구원

■ A.M. Best는 보험회사 규모에 따라 신흥국 보험시장이 선진국 보험시장과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900개 보험회사¹⁾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²⁾

- 선진국 보험시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을, 신흥국 보험시장은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MINT(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MENA(중동, 북아프리카)를 조사함.
- 보험회사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형사(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 중형사(6~15위 10개사), 소형사(16위 이하 보험회사) 그룹으로 구분함.

■ 보험료 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 보험시장과 신흥국 보험시장이 모두 대형사와 중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았고, 성장률 측면에서는 두 시장 모두 소형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선진국 보험시장과 신흥국 보험시장이 모두 대형사와 중형사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이들의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모두 50% 이상임.
- 선진국 보험시장과 신흥국 보험시장에서 모두 소형사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사의 성장률을 제고가 어려운 가운데 소형사가 보험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신흥국 보험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선진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흥국의 보험회사 간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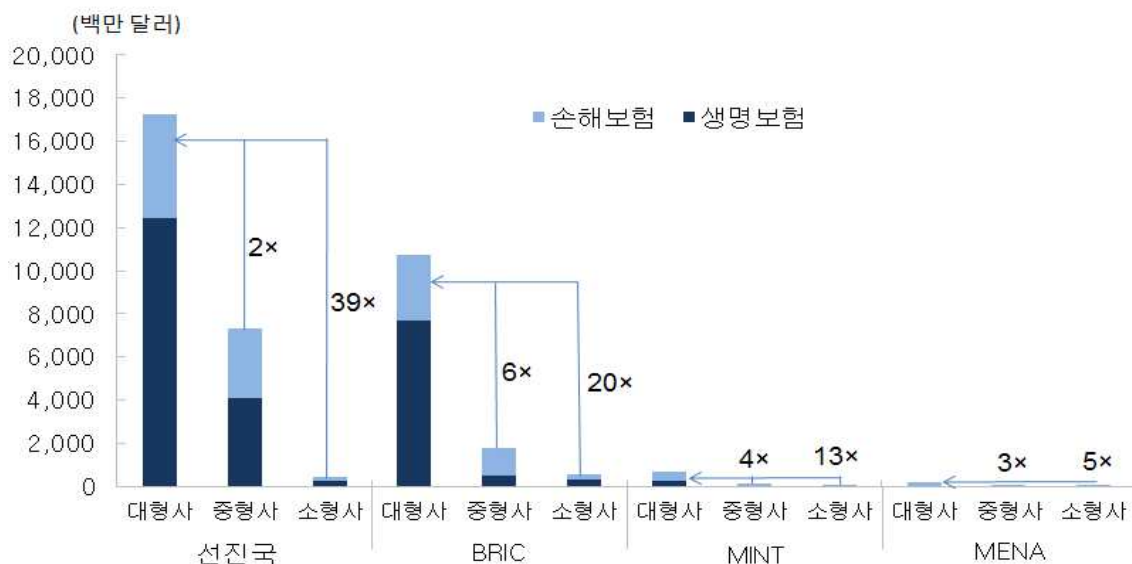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는 대형사와 소형사의 보험료 규모 차이가 39배였으나, 신흥국의 경우 BRIC이 20배, MINT가 13배, MENA가 5배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았으며, 이는 보험료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소형사의 경쟁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1)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음.

2) A.M. Best(2015. 3. 17), "For Insurers In Emerging Markets, Size Matters".

- 선진국의 소형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신흥국의 소형사는 모든 부문에 걸쳐서 대형사 및 중소형사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에서는 소형사가 전문성이 있어 자신만의 특화된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흥국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된 시장을 가지기 어려워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부문에 걸쳐서 경쟁하고 있음.

〈그림 1〉 선진국과 신흥국 보험시장의 그룹별 보험료 규모 비교



자료: A.M. Best(2015. 3. 17), "For Insurers In Emerging Markets, Size Matters", p.2 재인용.

- 신흥국의 경우 소형사가 대형사보다 약 5~10% 정도 더 많이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보험 출재가 소형사의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신흥국 소형사의 손해율은 대형사 및 중소형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업비율은 소형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대형사와 수익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함.
- 신흥국 소형사의 높은 재보험이익수수료율(Reinsurance Commission Ratio)은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수익성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신흥국 소형사의 투자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선진국 보험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 2008년 이전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공격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취하여 높은 투자수익률을 시현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함.

- 그 이후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축소와 자산통합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소형사를 중심으로 투자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유럽 보험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자산운용 전략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으며, 채권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보험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채와 높은 영업레버리지³⁾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신흥국 보험회사들의 재무레버리지⁴⁾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나 선진국 보험회사들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은 약 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영업레버리지 비율의 경우 신흥국 보험회사들이 선진국 보험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는 선진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재보험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A.M. Best)

3) 기업의 영업비용 중에서 영업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4)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 중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